

글말교실 소감문 공모전

기계공학부 20231077 김우석

'실험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해 교수님께 1:1 코칭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가 아닌 정말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받은 것은 '실험목적'과 '실험결과' 부분입니다. 실험목적은 단순히 실험에서 하게 될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 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라며 조언을 해주셨고, 실험결과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게 된 점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식 연구원으로서 보고서를 쓸 때에는 실험 결과가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려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 외에도 향후 경력이 쌓였을 때에는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글쓰기 잘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책이나 논문을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며,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면서 읽으면 좋고,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글을 고쳐쓰는 습관도 중요한데, 이것이 축적되고 나면 훌륭한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언을 듣고, 평소에 글을 고쳐쓰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것들도 이런 충고를 들으니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글쓰기 경험이 많을수록 글쓰기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후 연구 및 개발 직무에 뛰어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받은 조언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학성적이 중요합니다. 훗날 영어로 논문을 쓰게 될 일이 많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둘째, 논문에 관한 것입니다. 인문계 논문과 이공계 논문은 성격부터 다르며, 그 분량도 다릅니다. 인문계는 문장형으로 길게 쓰는 방식을 선호하는 한편, 이공계는 개조식으로 짧게 쓰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한 이공계는 그래프 등의 실험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글의 분량이 인문계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또한 이공계는 인문계에 비해 논문을 쓸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합니다. 이공계의 지식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식이 축적되는 중입니다. 저의 진로와 글쓰기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코칭으로 '글쓰기 실력 향상의 방법'과 '글쓰기와 진로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궁금했으나 질문할 사람이 없었던 저에게 이번 코칭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 진로와 글쓰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되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준 있는 글쓰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이번 코칭으로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